

“될 사람 밀자” 전략적 선택...‘대세론’ 이번은 없었다

문재인 호남경선 압승 배경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대세를 가를 중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권 순회경선은 문재인 대세론을 피해가지 못했다.

문 후보는 첫 경선지이자, ‘본선 같은 경선’이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 60.2%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향후 경선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文, 호남서 의미심장한 승리=문재인 후보는 이날 호남권 경선 압승으로 사실상 경선 판세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 선거인단 비율이 높은데다, 호남이 상징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선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호남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호남에서 가장 어려운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특히 문 후보가 그동안 호남에서 ‘반문(反文) 정서’에 시달려왔던 만큼 이번 호남권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압승은 더욱 값진 성과로 분석된다. 더구나 호남지역 대의원, 일반 및 권리당원, 국민 참여 경선 모두에서 과반 이상의 고른 득표율로 승리한 점도 향후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호남 1위 후보는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호남 경선 결과는 남은 세 차례(충청-영남-수도권 등) 순회경선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분석이다.

◇文, 과반 이상 압승 어떻게? =문 후보는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2위와의 차이를 벌였다. 여전히 ‘반문 정서’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호남에서 60.2%의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연말부터 조기 대선 전망 속에 확고하게 자리한 ‘문재인 대세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호남권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과 지역위원장 조직이 문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이 호남권 압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탄핵 정국 속에 만들어진 ‘문재인 대세론’에 이끌려 사실상 지역 지역 정치권의 출석기도 경선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면서 “선거인단 모집에 경쟁이 붙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남 출신 후보가 없는 상황여서 상당수 부동표가 ‘차라리 될 사람 밀어주자’면서 문 후보의 대세론에 휩쓸린 점과 20·30대 젊은층의 경선 참여도 문 후보가 압승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 후보 측의 진정성있는 호남 민심 구애와 부인 김정숙 여사의 바닷 민심 출기가 지난 4·13 총선에서 정점을 찍었던 ‘반문(反文) 정서’를 상당 부분 희석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경선 발표에서도 “2012년 호남의 좌절과 분노는 절대 호남의 패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는 호남에 좌절을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반문 정서’ 상당 부분 희석

부인 김정숙 여사 바닥민심 훑어

향후 경선 대세론 이어갈 듯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투표소투표	8167	2451	1862	44
ARS투표	133130	44515	43888	906
대의원투표	1046	249	96	4
합계	142343	47215	45846	954
득표율	60.2%	20.0%	19.4%	0.4%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것이다”면서 호남 인제 등용, 호남의 경제와 일자리 부흥 등의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전은 없다=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등은 그동안 호남 지역민들이 중요 고비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온 곳이라는 점 때문에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올인’했다.

이들은 문 후보의 과반 저지를 노리면서 결선투표 등도 예상했지만, 호남에서의 조직과 지지세력에서 문 후보에게 크게 밀리면서 결국 ‘文 대세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선거인단 비율이 높고, 대선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호남에서 큰 표 차이로 문 후보의 압승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경선을 통한 반전은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민주당 안팎의 중론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향후 경선에서 격차를 줄이면서 선거인단 비율이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는 안방인 충청권에서, 이 후보는 영남권 등에서 문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뒤 수도권에서 반격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경선이 끝난 뒤 안 후보는 “이제 첫 라운드가 끝났다. 저로서는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이제 충청에서 다시 만회하고 뒤집고, 그리고 영남에서 버텨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인 수도권에서 최종 역전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호남 경선)이전의 기대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상승추세인 것은 확인됐다”면서 “지금 이 건 출발에 불과하고 진짜 본 게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영남과 충청을 거쳐 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등에서도 호남 경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큰 표 차이로 승리할 경우 두 후보의 경선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이 열린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길게 줄 지어 1층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층 방청석에서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피켓 등을 들고 지지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지자 몰려 교통정체...7000여명 응원전 ‘후끈’

‘임 행진곡’ 흘러 나오자 지지후보 상관 없이 합창

뜨거웠던 민주당 호남경선 현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순회경선은 ‘본선 같은 예선’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세 대결이 펼쳐졌다.

경선이 진행된 8300여석의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리를 메운 각 후보 지지자들로 무대 쪽 자리를 제외하고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측은 7000여명 이상이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체육관 주변은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부터 물러는 지지자들로 인해 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이날 현장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호남권역 대의원 1900여명이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각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을 위해 먼저 자리를 채웠다. 지지자들은 각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가 하면, 응원가를 연신 열창해 대화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지자들은 각 후보의 상징색(이재명-주황색, 문재인-파란색, 안희정-노란색)으로 만든 의상과 도구를 이용, 응원에 열을 올렸다. 한때 선관위 측은 허용되지 않은 응원도구와 행사장 내 플래카드 설치 불허를 방금하며 자칫 과열될 수 있는 응원대결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경선 열기는 후보자들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절정에 이르렀다. 후보들이 체육관을 돌며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체육관이 떠나갈 듯 목청을 높여 후보를 연호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과 함께 잠시 잠잠해지는 듯했던 장내 응원 분위기는 후보들의 정경발표가 시작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연설 중간 중간 큰 박수를

보내던 청중들은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할 때마다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이날 주자들은 정경발표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신경전도 끊이지 않았다.

먼저, 단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가 기댈 것은 적폐세력과 손잡는 다수의석이 아니고, 국민보다 앞서 달려가는 과격함도 아니다”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을 동시에 겨냥했다.

다음으로 연설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가 후보가 돼도, 안 지사가 후보가 돼도 정권교체가 된다. 그러나 이재명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서천 앞바다 골목기가 제철이고, 전라도 바닷가 봄 도다리도 제철이다. 17년 제철음식인 저 안희정이 도전한다”며 “노무현의 기적을 2017년 오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검증이 끝난 후보”, 안 지사는 “우클러이 아니라 뉴클러”, 이 시장은 “진짜 교체”를 모토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주자들의 연설이 모두 끝나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시작됐지만 각 캠프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채 응원전을 이어갔다.

특히 한때 장내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져 모두 제창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후 3시40분께 이 시장 지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다른 후보 지지자들도 잠시 응원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날 행사장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캠프 인사는 물론,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출동해 뒷방에서 세몰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예상외의 흥행을 거둔 상황에서, 호남 민심 잡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조이투어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는 골든윌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밧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광복조전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차/기타교통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초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